

젊은층 중심으로 인스턴트·RTD 커피 열풍

자카르타지사

인도네시아 커피의 양과 질 개선을 위한 전략

-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의 다르민 나수띠온(Darmin Nasution) 장관은 세계 커피생산량 4위를 자랑하는 인도네시아산 커피의 품질 향상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로드맵을 발표했다. 전략 로드맵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 개선등 중·장기적인 지침이 담겨있다.
- 현재 인도네시아에 분포하는 커피농장 총 면적은 약 125만ha로, 커피나무의 성장과 커피콩 수확이 가능한 재배면적은 약 93만ha에 이른다. 커피생산량 세계 2위의 베트남보다 약 2배 이상의 커피농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1ha당 생산량은 인도네시아보다 베트남이 약 4배가량 앞선다.
-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8년까지 1만6,400ha 면적에 1,099만 그루의 커피나무를 심고, 커피농가에 우량모종과 비료 등을 제공하는 한편, 아라비카종과 로부스타종의 재배농지를 구분하여 커피 생산량을 3~4배가량 끌어올릴 계획이다.

원두커피 주력 생산국 인도네시아에 부는 인스턴트 열풍

- 인도네시아 음료시장에서 인스턴트 커피와 RTD(Ready to Drink) 커피의 소비가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다. 인스턴트 커피와 RTD 커피의 인기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음료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초콜릿맛, 바닐라맛, 생강맛, 인삼맛을 함유한 다양한 커피 제품을 출시했다.
- 인도네시아의 인스턴트 커피 주요 생산업체는 'PT.Santos Jaya Abadi'로 47%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덟 개의 커피브랜드(Kapal Api, ABC, Good Day, Excelso, Ya!, Fresco, Kapten, Santos)와 두 개의 커피 프랜차이즈(Cafe Excelso, Cafe Grazia)를 운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인스턴트커피 브랜드별 시장점유율(판매량 기준)

커피 브랜드	생산업체	2014	2015	2016	2017
Luwak White Coffee	Java Prima Abadi	15.7%	15.3%	15.0%	15.4%
ABC Susu (Kapal Api Group)		12.7%	13.7%	14.9%	14.8%
Kapal Api (Kapal Api Group)	Santos Jaya Abadi	16.0%	14.1%	13.8%	13.8%
Good Day (Kapal Api Group)		11.7%	12.1%	12.5%	12.5%
Torabika	Mayora Indah Tbk	10.2%	10.2%	10.6%	11.0%

인도네시아 RTD커피 브랜드별 시장점유율(판매량 기준)

커피 브랜드	생산업체	2014	2015	2016	2017
Kopiko 78C	Tirta Fresindo Jaya	33.5%	37.9%	39.4%	38.6%
Good Day (Kapal Api Group)	Santos Jaya Abadi	21.1%	22.5%	23.3%	29.0%
Nescafe (Nestle SA)	Nestle Indonesia	34.9%	31.7%	30.2%	25.5%
Granita	Setia Pesona Cipta	0.6%	0.7%	0.8%	1.2%
Esco (Kapal Api Group)	Monysaga Prima	1.5%	0.4%	0.2%	0.1%

적절한 시장조사와 마케팅으로 승부해야

- 서구적인 라이프스타일의 영향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커피전문점의 영향으로 인해 인스턴트 커피와 RTD 커피를 선호하는 인도네시아의 소비트렌드는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지난해 인도네시아로 수출된 한국산 커피음료가 약 4,080만 달러(약 441억 원)에 달하고는 있으나, 거대 커피시장으로 성장을 거듭하는 인도네시아를 공략하는 글로벌 브랜드와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 커피업체들이 철저한 시장분석과 다양한 마케팅을 펼쳐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